

뉴욕증시 - 유가 급등·엘런 발언 영향 일제 상승 ...S&P '연중 최고'

1. 엘런 의장, 경제 상당한 불확실성...점진적 금리 인상은 필요
2. 엇갈린 연준 위원들 금리 전망
  - \*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美 경제, 점진적 금리 인상 정당화해줘"
  - \* 블라드 세인트 연은 총재 "6월 인상 가능성 하락"
  - \* 록하트 애틀랜타 연은 총재 "기준금리 인상에 인내심 선호"
3. 국제유가, 나이지리아 공급차질 우려에 2.2% 급등 ...WTI '11개월 최고치'
4. 美-5월 CB고용추세지수 128.53 → 126.81
5. 유럽증시, 원자재업종 강세에 상승 ...英 FTSE1% ↑
6. ECB 정책위원 "추가 정책 수단이 필요할 것 같지 않다"

(직전 영업일 기준-美6일, 韓7일)

국제 증시			국제 상품		
DOW30	17920.33	(+0.64%)	WTI	46.69	(+2.2%)
NASDAQ	4968.71	(+0.53%)	COMEX금	1247.40	(+0.4%)
S&P500	2109.41	(+0.49%)	COMEX구리	2.1175	(+0.21%)
KOSPI	1985.84	(+0.04%)	주요국가 10y국채		
KOSDAQ	701.43	(+0.04%)	한국	1.738%	(-2.5bp)
국제 통화			미국	2.560%	(+3.6bp)
유로/달러	1.1352	(-0.0014)	영국	1.280%	(+0.3bp)
유로/엔	122.10	(+1.08)	독일	0.080%	(+1.8bp)
달러/엔	107.54	(+0.96)	프랑스	0.450%	(+4.0bp)
달러/위안	6.5497	(-0.0296)	이탈리아	1.460%	(+4.8bp)
원/달러	1183.60	전일 1186.60	스페인	1.510%	(+5.1bp)
NDF	1164.50 / 1165.00원	19.65원 급락	그리스	7.170%	(+4.6bp)

주간 예정 지표

국가/날짜	경제지표	Previous	Forecast
<b>6월 7일</b>			
미국	-1분기 비농업생산성 (QoQ)	-1.0%	-0.6%
	-1분기 단위노동비용 (QoQ)	4.1%	4.0%
유로존	-1분기 GDP (QoQ)	0.5%	0.5%
독일	-4월 산업생산 (MoM)	-1.3%	0.7%
<b>6월 8일</b>			
미국	-4월 JOLTs구인건수	5.757M	5.672M
	-5월 무역수지 (USD)	45.56B	58.00B
중국	-5월 수출 (YoY)	-1.8%	-3.6%
	-5월 수입 (YoY)	-10.9%	-6.0%
일본	-1분기 GDP (QoQ)	0.4%	0.5%
<b>6월 9일 [ 금통위 ] &amp; [ 중국 단오절 휴장 (~10일) ]</b>			
미국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	267K	270K
	-4월 도매재고 (MoM)	0.1%	0.1%

중국	-5월 CPI (MoM)	-0.2%	-0.2%
	-5월 PPI (YoY)	-3.4%	-3.3%
영국	-4월 무역수지	-11.20B	-11.20B
독일	-4월 무역수지	23.6B	23.0B
<b>6월 10일</b>		<b>[ 중국 단오절 휴장 ]</b>	
미국	-6월 미시간대소비자신뢰지수	94.7	94.0
독일	-5월 CPI (MoM)	0.3%	0.2%

<2016년 6월 7일 시황>

1. 전일 장중 동향

\*KTB: 시가 110.38 / 종가 110.42

\*LKT: 시가 129.85 / 종가 130.03

1) 국채 금리는 외국인들의 국채선물 매수세에 하락하며 장을 마감. 이번 연휴 기간 동안 발표될 비농업부문 고용지표와 재닛 옐런 연준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시장의 반응에 촉각을 세우는 모습. 또한 다음주 금통위에 기준 금리의 인하 또는 동결, 소수의견에 따라 시장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 다만 FOMC 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만큼 고용지표가 서프라이즈 수준이 아닌 이상은 큰 변동성은 없을 것이라 추측.

<주말 주요 뉴스>

- 美 비농업부문 신규고용 5년 만에 최소...예상 대폭 미달
- 옐런 "시간에 따른 점진적 금리인상 적절"...브렉시트 우려
- 시카고 연은 총재 "2% 물가목표 도달하려면 3년 걸릴 듯"

2) IRS 금리는 모든 테너에서 0.50-3.25bp 하락하며 커브는 플랫. 국채에 비해 더 큰 낙폭을 보임. 미국 고용지표, 옐런 의장의 연설, 금통위 등 큰 이벤트 들이 기다리는 가운데 IRS 시장 전체는 비드를 찾는 분위기. 이후 이벤트의 흐름에 따라 시장 방향성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보임.

3) CRS 금리 역시 강세 마감. 0.5-1.0bp의 하락폭을 보이며 커브는 소폭 플랫. CRS 장은 전체적으로 매우 조용한 가운데 역시 국내 및 해외 이벤트에 대한 관망세가 짙음. FX스왑의 금리 하락과 더불어 부담이 커진 가운데 에셋 스왑 물량도 많이 줄어든 모습.

국내 주요 금리			BOND SWAP SPREAD		
<b>3y</b>	1.423%	(-2.0bp)	<b>3y</b>	-4.3bp	(-0.8bp)
<b>5y</b>	1.513%	(-1.9bp)	<b>5y</b>	-7.8bp	(-1.1bp)
<b>10y</b>	1.738%	(-2.5bp)	<b>10y</b>	-18.8bp	(-0.8bp)
<b>CD</b>	1.560%	(0)			

IRS OUTRIGHT			IRS SPREAD		
<b>1Y</b>	1.4200%	(-1.25bp)	<b>1*2Y</b>	-4.00	(-1.00bp)
<b>2Y</b>	1.3800%	(-2.25bp)	<b>2*3Y</b>	0.00	(-0.50bp)
<b>3Y</b>	1.3800%	(-2.75bp)	<b>2*5Y</b>	5.50	(-0.75bp)
<b>5Y</b>	1.4350%	(-3.00bp)	<b>3*5Y</b>	5.50	(-0.25bp)
<b>7Y</b>	1.4775%	(-3.00bp)	<b>5*7Y</b>	4.25	(0)
<b>10Y</b>	1.5500%	(-3.25bp)	<b>5*10Y</b>	11.50	(-0.25bp)